

삶의 질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여성농업인이 꾸리는 생산과 복지의 행복 공동체

무안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 다양한 교육, 영유아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 농업인의 경제 활동과 복지 등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영유아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여 해결책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충 상담, 보육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설정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 중에서도 특정 목적이 제한된 범위의 사업만 지원하도록 정부 지침을 만들었기에 활동에 제약이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공공 서비스 수준, 농업 환경 등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센터에 요청하는 바도 지역마다 다르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이러한 이유로 센터가 설립된 지 15년이 흐른 지금, 센터의 역할 및 추진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필요한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 삶의 질 서비스 수요는 연령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젊은 세대의 여성 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 활동을 하도록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 방과 후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종사하는 농업 및 농외 활동에 따라 필요한 교육도 다르기에, 이들에게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한편, 고령의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건강, 영양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 농업인과 대면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힘써 온 여성농업인센터는 다양한 수요와 농촌의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에 대한 궁금함을 품은 채,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를 방문했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무안군 여성 농업인의 현황과 문제점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한 현경면은 무안군에서도 서해에 면한 해안 지역이다. 이곳에서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과 어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가사와 마을 일을 부지런히 돌보며 생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보육과 교육이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은 농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자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는다. 학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나마 교육 여건이 갖추어진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특히 농번기에는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들다. 과거에는 이웃이 모여 살면서 아이 돌보는 일을 서로 분담했지만, 요즘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또래 여성이 드물고, 동네 주민 사이의 관계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지역사회 여성 농업인 연대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는 2006년 개소한 이후, 현경면을 포함한 무안군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여성 농업인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무안군 여성 농민회가 수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 농민회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한다.

센터는 여성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집중하도록 고충 상담과 어린이 방과 후 교육 등을 진행한다. 올해 농번기에는 여성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현경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므로 센터가 별도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농번기 주말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이 외에도, 센터는 자체적으로 부정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주민 대상의 다양한 교육 사업, 독거노인에게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는 복지 사업, 무안군 여성 농민회의 ‘언니네 텃밭 무안공동체’ 등 경제 활동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주민 대상의 교육 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년 단위로 교육이 갱신되며, 현재까지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다양한 강좌를 수강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 이들 중 20여 명은 교육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활동 주체가 되었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협업한 결과 ‘2015 무안 여성을 위한 여름 강연회: 살자, 날자’라는 제목으로 두 달 간 총 6회의 여성 농업인 인문학 강연회를 했고, ‘2017 먹거리 강연회: 먹거리와 농촌사회’라는 주제로도 2회 강연회를 열었다.

센터가 추진했던 문화 프로그램도 핵심 사업이다. 여성 노인들이 오카리나 및 품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어 현경면뿐만 아니라 무안읍과 인근 시·군의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품바 교실은 무안군의 전통문화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품바 타령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식량 주권 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에서 추진한 제철 꾸러미 사업을 비롯하여, 토종 종자 보존 사업, 도·농교류 활동 등을 무안군 여성 농민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무안군 여성 농업인들이 모인 ‘무안공동체’가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주로 제철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무안공동체가 생산·수집한 농산물과 식품을 포장하고, 택배 보낼 수 있는 간이 시설을 갖추고 지원한다. 이 같은 센터의 지원으로 무안군 여성 농업인 생산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었다.

무안공동체는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 부추, 고추, 고구마, 도라지, 갯, 취나물, 방풍 등 특색 있는 작물을 생산한다. 게다가 갯벌에서 여름에는 바지락을, 겨울에는 감태와 김을 채취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활용하여,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김치, 제철 나물, 두부, 장아찌 등의 반찬을 손수 만든다. 매주 센터에 모여 회의를 거쳐 그 주에 내보낼 제철 채소와 반찬을 결정하면, 생산자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다. 이렇게 기르고 만든 제철 먹거리들이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의 유통망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된다.



센터는 지역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행복 꾸러미 활동’도 벌이고 있다. 농어촌 희망재단의 ‘교육문화공동체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행복 꾸러미 활동은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로 반찬을 만들고, 독거노인에게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는 복지사업이다. 행복 꾸러미 활동을 언니네 제철 꾸러미 활동과 병행하는데, 무안공동체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밑반찬과 국을 만들어 언니네텃밭 제철 꾸러미와 행복 꾸러미로 전달한다. 무안 여성 농업인 중에서 10여 명이 언니네텃밭 활동과 함께 행복 꾸러미 활동에 참여한다. 이 중에서 6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경면 일대 80세 이상 독거노인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주에 45명에게 격주로 반찬 꾸러미를 전달한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 어르신께 배달하고 오는 도중에, 옆집 할머니가 계셔서 그날 우연히 남은 꾸러미 한 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차 소리만 들리면 내다보세요. 그냥 손 한 번 잡아 달라고. 저는 줄 것이 없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손 한 번만 잡아 달라고 하세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할머니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꼭 할머니도 넣어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배달하면서 말 한 마디 건네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 여성 농업인 면담 중에서)

먹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행복 꾸러미 활동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서를 나누는 활동이기도 하다. 무안군 여성 농업인들은 언니네텃밭과 행복 꾸러미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논의한다.

“저는 (행복 꾸러미 대상자로)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을 추천했는데 동네에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마을 분들을 잘 모르던 때라 이장님께 추천해

보건·복지

교육

청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명씩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할머니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이런 것을 못한다. 할아버지 위주로 배달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들은 농사나 밥은 직접 할 수 있지만, 김치는 못 담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문제 때문에 식사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독거 할아버지를 방문해보니 청소와 위생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청소해 줄 수 있는 분이 할아버지 댁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도와주는 것이 할아버지 복지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 여성 농업인 면담 중에서)

행복 꾸러미 활동은 공동체 일원에게 일정한 헌신을 요구하고, 언니네텃밭 꾸러미 사업에서 얻는 돈은 농업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개인들은 공동체 활동을 계속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동체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생각에 무안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질문했다.

가장 큰 이유로 매주 모이면서 형성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꼽았다. 반가운 얼굴을 화요일마다 만난다는 기대감이 어려운 활동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한다. 각자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며 지역사회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 혹은 공동의 가치도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이유로 꼽았다. 무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이끌어온 장은이 센터장의 헌신적 노력과 추진력도 무안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장은이 센터장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도 무안군 여성 농민회 사무국장 활동과 센터장 역할을 병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가치와 활동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그녀의 책임감과 추진력이 무안공동체가 지속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센터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

센터는 문화 프로그램 및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생산 공동체 활동 등 자체 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농업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센터에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여 소중한 결실을 이루었지만, 지역사회 농촌·농업 주체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최근 농업의 6차산업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지원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를 이용해 여성 농업인이 환경 변화를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센터는 여성 농업인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다양한 전문 교육을 마련하려고 한다. 원예 지도사, 가죽 공예 등 여성 농업인에게 적절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등 농업 교육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일도 기대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 농업인에게 복지 서비스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역할을 강화하려면 센터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여성 농업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도 농업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한다면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 부연구위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 **사업목표** 여성 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
- **사업기간** 2002~계속
- **법적근거** 여성 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